

광주시교육청, 고교생 대학입시 전문적으로 돕는다

'1고교1대입 전문디렉터' 본격 추진 학생 맞춤 컨설팅·교사 전문성 향상

광주시교육청이 광주 고교생들의 대학입시를 전문적으로 돕는 '1고교 1대입 전문 디렉터' 사업을 시작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대입 전문 디렉터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1고교 1대입 전문 디렉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위해 그동안 각 학교에서 맞춤형 대입 지원 전략을 수립·운영하는 진학 전문 가로서 대입 전문 디렉터 양성에 주력했다.

이번에 위촉장을 받은 49명 일반고 교사는 지난 5개월 양성과정을 마친 이들이다. 이들은 전국 최초 '대입 전문 디렉터'로서 광주지역 일반고에 배치돼 활동한다.

이들은 대입제도 변화를 반영한 대입 전형 분석, 학생 개별 맞춤형 대입 컨설팅, 교사 진로진학 전문성 향상,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방안 마련, 학교별 합격사례 관리, 학교 간 진학정보 공유 등을 맡게 된다.

고교 3학년 진학부장, 진로전담교사, 교육과정 전문자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개별 맞춤형 진학설계 ▲선택형 교육과정 구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 ▲각 대학의 전형 설계 기본 방향 분석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 환경 변화 대응 등 핵심 교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전문 디렉터가 광주 진학과 다양성 교육 추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심화 교육을 통해 새로운 대입 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1고교 1대입 전문 디렉터' 사업은 이점선 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대입 전문 디렉터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점선 광주시교육감과 대입 전문 디렉터 49명이 광주 고교 입시 교육 강화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시교육감의 공약사업인 동시에 '다양성을 품은 광주학생 실력향상' 실현을 위한 역점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19년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대입 선발 방식이 급변하자 시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한 고교교육 강화 방안이다.

대입선발 방식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수능 위주 전형 확대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 비율 증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의 변경 및 분량 축소 등의 큰 변화가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기존 3학년 위주의 진학지도에서 벗어나 전 학년을 아우르는 진학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 전국 최초로 '대입 전문 디렉터'를 도입했다.

지난 5개월 동안 각 고교의 예비 대입 전문 디렉터는 주말과 방학을 반납하고 집중 연수를 받았다.

대학입학사정관, 대입지원관, 진학전문교사, 프로듀서 등 전국의 대입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수도 진행했다. 특히 대입전형의 기본사항과 전형별 특징 등 이론을 중심으로 한 '기본과정'과 교육과정과 수업, 입시자료 통계 분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바

탕으로 한 실습 과제 등을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은 대입 전문 디렉터로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했다.

대입 전문 디렉터로 위촉된 송영외 박영범 교사는 "학교에서 진학지도를 하다 보면, 자주 바뀌는 대입전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 등으로 진학지도에 힘들 때가 많았다. 그래서 대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대입 전문 디렉터를 신청했다"며 "연수를 받으며 대입제도와 진학지도 방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많은 배움과 성장이 있었다. 대입 전문 디렉터로서 연수를 통해 배운 역량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위한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점선 교육감은 "1고교 1대입 전문 디렉터는 제가 직접 구상한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이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속하고 정확한 최신 입시정보를 바라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또 대입 전문 디렉터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교육 진학지도를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성과 거두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목포해인여고 찾아 수험생 응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목포해인여고를 찾아 2024년 대입 수능능력시험(오는 11월 16일)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을 격려하는 등 응원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수능이 변화된 출제 양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3 수험생들을 직접 만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음을 다잡도록 이번 현장 응원을 기획했다.

김대중 교육감의 목포해인여고 방문을 시작

으로 부교육감,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등 분청 간부들이 도내 고등학교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노력한 과정, 따뜻하게 응원하는 부모님, 항상 지지해 주시는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힘내달라"고 당부하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한 마무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목포해인여고를 찾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한 수험생과 악수를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조선대 중앙도서관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

일반열람실 환경개선 사업 오픈식

조선대 중앙도서관이 이용자에게 꿈 희망을 심어 주는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소통의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사진>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지난 28일 '중앙도서관 일반열람실 환경개선 사업 오픈식'을 열고 새롭게 꾸며진 공간을 열었다.

새로 오픈한 일반열람실은 '재움서재', '공감누리' 두 개 공간이다. 리모델링은 '중앙도서관 스마트 UP 발전기금'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된 3억 원에 교비 10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억 원이 더해져 진행하게 됐다. 네이밍은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재움서재'는 지식과 경험을 채우는 공간이라는 의미와 책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탐색하고 습득하는 집중 학습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공감누리'는 이용자 간의 연결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중앙도서관에서 세상을 나가기 위해 발돋움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열린 학습 공간으로 학습과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 학습 공간으로 카페형 공간을 콘셉트로 리모델링해 공간에 음악을 더했다.

임성철 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일반열람실 리모델링 사업이 단순한 공간 변화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이 이용자의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입생 유치 홍보 및 재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캠퍼스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육군3사관학교 생도 선발

동강대 재학·졸업생 10명 면접

동강대학교 군사학과가 육군3사관학교 생도 선발시험에서 2011년 학과 개설 후 최다 합격생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전국 최고의 군사학과임을 재입증했다.

동강대 군사학과(학과장 조동권)는 올 5월부터 진행된 '2024년도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신입생 선발 시험'에서 재학·졸업생 10명이 3차 최종면접에 올랐다.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장교과정으로 공무원 7급에 해당된다.

동강대 군사학과는 2022년도 7명, 2023년도 4명 등 매년 꾸준히 합격자를 배출했고 특히 호남권역 전문대학 최초의 여학생 생도와 1학년 재학생 예비생도 배출 등의 기록을 세우며 화제가 됐다.

한편 동강대 군사학과는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2024학년도 수시 1차 모집을 진행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문헌정보학과 12명 복규레이터 2급 자격증 취득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12명이 방학 중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과) 사회수요반영 전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복규레이터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사진>

문헌정보학과는 최근 한 달 동안 대학혁신사업단 지원사업 일환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복규레이터 2급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특히 교내 호심관 문헌정보학과 종합실습실에서 진행된 실습 과정에 김미정 강사(한국복규레이터협회 회장)를 초빙, 현 출판상황에서 복규레

이션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독자의 독서환경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이해, 공간 목적에 따른 복규레이션 서비스 기획·적용 등의 교육을 받았다.

이번 자격증 프로그램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은 총 12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8월 5일 실시된 복규레이터 2급 자격증 시험에 수강생 전원이 합격하는 결실을 맺었다.

한편 광주대 문헌정보학과는 다양한 특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 관련 자격증 수업을 통해 적성을 찾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